
Bangladesh

-Raonatti-



방글리아 12월 월간보고
-구정선, 김나드, 이창현, 한지연, 홍수연-

Contents.



1. 월간일정.
 2. 주요활동 소개 및 나눔
-
3. 향후 활동 계획
 4. 개인별 월간 소감.



1. 월간일정

월간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AIDS DAY
2 •DAHAPARA •한국어 수업	3 •DAHAPARA •UNO	4 •DAHAPARA •태권도 수업	5 •인형극 준비 •한국어 수업	6 •GO TO THE DHAKA	7 •대선	8 •완 갈 라 (GARO 족 축제)
9	10 •DAHAPARA •태권도 수업	11 •DAHAPARA •태권도 수업	12 •PRE CHRISTMAS 준비 •한국어 수업	13 •DAHAPARA	14 •PRE CHRISTMAS IN YMCA	15 •PRE CHRISTMAS IN YWCA
16 •독립기념일	17 •DAHAPARA •태권도 수업	18 •DAHAPARA(clean ing campaign) •태권도 수업	19 •Compassion pre christmas •한국어 수업	20 •DAHAPARA	21	22 •GROUP DISCUSSION
23 •DAHAPARA FAMILY PICTURE	24	25 •CHRISTMAS	26	27	28 •결혼식	29
30 •결혼식	31 •결혼식	* 2012.12.23 ~ 2013.1.3 까지 공식적으로 Raonatti의 스케줄은 없었음.				



2. 주요활동 소개 및 나눔

주요 활동 소개.

- DAHAPARA SCHOOLING PROGRAM-

일정 : 12월 2~24일 매주 4일 일, 월, 화, 목

일시 : 오전 10시~ 오전 12시 30분(2시간 30분)

장소 : DAHAPARA

대상 : DAHAPARA 학교의 약 30명의 학생들 그리고 마을 아이들

활동 내용 : 12월 초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고 기존의 영어와 수학위주의 수업에서 미술과 체육, 애니메이션 상영으로 활동이 변경 되었다.

특히 12월 18일은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관련 동영상 상영하고 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 통에 넣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위생 교육 또한 실시하였다.



주요 활동 나눔.

- DAHAPARA SCHOOLING PROGRAM-

- 아이들이 쓰레기 통이 없고 쓰레기를 왜 주워야 하는지 몰라서 줍지 않았던 것이지 캠페인을 하고 나서도 열정적으로 줍는 모습이 좋았고, 손을 씻는 것도 한 번 하는 거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기수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의 인식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 캠페인을 할 때는 쓰레기를 줍고, 연필을 선물로 줘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항상 주우면서 선물을 바라지는 않을까? 하나의 이벤트로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캠페인 이후 다하파라에 갈 때마다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 통에 넣는 아이들을 보니 염려는 사라지고 인식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좋았다.
- 우리가 손을 씻는 과정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했는데 다음에는 자연에도 해가 안되고 재활용을 이용해서 만드는 세제를 사용한다면 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
- 다하파라 아이들의 신상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학교의 아이들 중에서의 자매와 형제 관계를 알 수 있었고, 이혼한 가정인지, 어머님과 아버님이 뭘 하시는지, 하루에 반찬 몇 개에 밥은 몇 끼를 먹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학교에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알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가정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좀 더 빨리 했었으면 더 빨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여유롭게 많은 집을 돌면서 관계를 맺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주요 활동 소개.

- 한국어 수업 -

일정 : 12월 2~24일 매주 일요일, 수요일

일시 : 오후 3시 ~ 오후 5시 (2시간)

장소 : BIRISIRI YMCA

대상 : BIRISIRI YMCA youth forum을 비롯한 birisiri 마을 청년

활동 내용 : birisiri마을에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본 회화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기본 문법을 가르친다.

기존에 우리가 전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수업자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ycma에 있는 화이트 보드를 이용하여 보다 더 유동적인 수업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의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12월달은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했다.



주요 활동 나눔.

- 한국어 수업-

- 한국어 수업을 해가면서 청년들과 사람들이 한국어로 안부를 묻고, '밥먹었어?' '뭐 먹었어?' '뭐해?' '잘가'라는 단어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한국어 수업시간을 헛되게 보내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 12월달은 휴일이 너무 많아 수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한국어로 말하는지 서로 이야기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1월에는 활동 정리를 하는 때라는 느낌이 강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흐지부지해 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주요 활동 소개

- 태권도 수업 -

일정 : 12월 2~24일 매주월요일, 화요일

일시 : 오후 3시 ~ 오후 5시 (2시간)

장소 : 장소 : BIRISIRI YMCA

대상 : BIRISIRI YMCA youth forum을 비롯한 birisiri 마을 청년

활동 내용 : 태권도 수업은 이곳의 청년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요구가 많아서 이루어진 수업이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태권도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다음 기본 자세와 용어들을 설명하고, 지르기, 발차기 기술 등을 익혔다.

이곳의 여성들이 태권도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성들의 참여는 전혀 없었고, 남성의 참여율과 수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다.



주요 활동 나눔

- 태권도 수업 -

- 다카에 가기 전에 태권도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학생들과 굉장히 활기차게 했는데 다카에 갔다 오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있고, 학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1월에는 다시 태권도 수업을 잘 꾸려서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해야겠다.

- 친구들이 아직도 시간을 잘 못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의 시간관념이 조금 더 정확해지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친구들이 꽤 안 온 적이 있었는데, 사무총장님이 직접 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지역의 청년들의 수요가 있어서 태권도 수업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태권도 수업의 개설이 이 청년들의 진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활동을 만들어 주시려는 사무총장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한국어 클래스는 앉아서 하는 공부이니만큼 활동에 있어 살짝 정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태권도 클래스는 운동이다 보니 청년들과 함께 움직이는 활동이라 더 활기찬 느낌이 있다.

주요 활동 소개

- 텃밭 가꾸기 -

장소 : BIRISIRI YMCA

활동 내용 : 열무의 잎 부분이 무성하게 자라 더 늦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수확을 했지만 생각보다 열무의 뿌리 부분이 거의 자라지 않았었다. 수확한 작물을 이용해 김치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김치를 만들기에는 작물이 부적절해 끝내 음식을 만들지 못했다.

현재 나머지 작물들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성장이 더뎠다.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주요 활동 나눔

- 텃밭 가꾸기 -

-텃밭 가꾸기가 초반에는 우리나라 농사법을 적용하긴 했지만 날씨와 토양이 좋아서 그런지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겨울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면서 점점 성장이 더뎠고 주변 잎들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해 하루빨리 수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확 후에 무엇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짜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고 우왕 자왕하다가 결국 열무 잎들이 다 썩어 버리고 말았다는 점에서 작물을 기르는 활동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활동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방글라데시는 겨울 시즌이 채소 가꾸기를 하는 시즌이라고 들었는데 우리의 채소들이 다 죽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씨앗이 방글라데시의 풍토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기온이 따뜻하긴 하지만, 토양도 다르고 수분도 다르기 때문에 다음 번 기수가 다시 텃밭 가꾸기를 시작한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한 후에 방글라데시에 최적화 된 씨앗을 심는 것이 관찰을 것 같다. 바로 다음 기수에게는 여름 시즌과, 몬순 시즌이므로 채소보다는 과일이나 벼 종류를 추천한다.

-만약 여기서 수확한 텃밭에서 나는 작물들을 이용해 한국 음식들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한국에서 재료를 준비해 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요 활동 소개

- 크리스마스 -

일정 : 12월 14~ 31일

장소 : birisiri

활동 내용 : YMCA의 pre christmas를 준비하기 위해 hall을 장식하고 캠퍼스 내에 트리를 장식했다.

garo와 방글라로 된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부르고 이곳의 요청으로 한국 캐롤 2곡을 준비해 YMCA와 YWCA에서 공연했다.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저녁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퀵톤에 참여하였다.

25일 당일에는 교회에서 다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집을 돌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미리 만든 차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24일과 25일만 기념한다면 이곳의 크리스마스는 12월 중순부터 25일 이후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 초대를 하며 음식을 나누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정말 즐기기 위한 축제를 한다.



주요 활동 나눔

- 크리스마스-

-처음에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했었을 때는, 크리스찬이 많은 가로족이다보니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퀵톤이라는 행사를 12월 전체에 걸쳐 하면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휴일을 갖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리스마스를 크게 즐긴다고 생각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차와 만티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집도 둘러보는 풍습을 보니 크리스마스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1년에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즐거운 날이라는 생각을 했다.

-외국에서 보낸 크리스마스가 처음이긴 하지만, 책과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즐기는 지 대충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독특한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면 방글라데시 비리시리로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정선단원의 경우, 서양 크리스마스에 너무 적응돼 여기의 크리스마스가 살짝은 어색했다고 한다.

-이 시즌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새해이기도 해서 외국에 나갔던 가족들, 타지에 나갔던 가족들이 다시 다 돌아오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새 옷을 선물해주는 관습을 보며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 곳의 문화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다고 생각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날 남녀노소를 불문해서 모두 다 같이 즐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축제이고 진정한 마을공동체적이라고 느꼈다.

주요 활동 소개

- 결혼식 -

일정 : 12월 28일, 30일 31일

장소 : 할루아갓, 비리시리, 슬포꼬로니아

대상 : nipun씨의 친척, 콕스웰 씨의 딸,
raymond씨의 동생

활동 내용 : 이곳의 사람들이 대부분 휴가를 가지는 12월말에 결혼식이 집중되어 있었다.

크리스찬의 결혼식이어서 모든 결혼식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 지고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와 선물을 받고, 웨딩 케익을 자르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 특별한 점은 이곳의 결혼식은 전날 결혼식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는 점이다.



주요 활동 나눔

- 결혼식 -

-우리나라 결혼식과는 매우 다른 결혼식이었다. 우선, 결혼식이 3일에 걸쳐 열리는 것을 보며 결혼식이 우리나라처럼 하루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는 본식 전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딱딱하고 전형적인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축하를 해주고 즐기기 위해 하는 느낌을 받았다.

-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마을의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해주고, 손님으로 온 사람들도 다같이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웨딩홀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천편일률적인 결혼식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결혼식도 마을의 하나의 축제가 되고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축의금 대신에 선물, 결혼식 때 먹는 고기(염소, 돼지, 닭)들을 주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색다른 결혼식 풍습을 알 수 있었다.

- 결혼식을 갖을 모든 신랑 신부들이 교회에서 메인 결혼식을 올렸는데 교회에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을 보고 한 커플이 주가 되어서 올리는 줄 알았는데 많은 커플들이 와서 결혼을 올리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주요 활동 소개

- END POVERTY CAMPAIGN 옷 나눔 -

일정 : 12월 23일

일시 : 오후 3시 ~ 오후 4시

장소 : BIRISIRI 빈민촌

대상 : BIRISIRI와 DURGAPUR을 잇는 다리 옆에 집이 없어서 정부에서 집을 지원해준 마을 사람들

활동 내용 : END POVERTY의 일환으로 진주 YMCA에서 진주에서 진행한 옷 기부를 통해 받은 옷이 방글라데시에 보내졌다.

우리는 이 옷을 우선 11월 달에 DAHAPARA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어른, 청소년들의 옷을 비리시리와 두가풀을 잇는 다리 옆의 빈민촌 사람들이 겨울에 춥지만 옷을 살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다.



주요 활동 나눔

- END POVERTY CAMPAIGN 옷 나눔-

우리가 그 마을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지 않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옷을 나눠주는데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옷을 나누어 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계획과 규칙을 정하고 옷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적어도 무질서하고 번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빈민촌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옷을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집이라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집도 없을 뿐더러 추워서 얼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더라면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옷을 나누어 주어 더 좋았을 것 같다.

옷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받았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더 예쁜 옷으로 바꿔 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옷이 정말로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분명 그 안에 옷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너무 무질서한 상황에서 있다 보니 마구잡이 식으로 옷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남는다.

우리가 마을 주변에 정말로 가난한 가정에 옷을 전달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한 벵골리 어머님께서 나도 옷을 달라고 찾아 오신 것을 보면서 이곳의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의 NGO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이 추워서 죽는 일도 많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듣고 적어도 기본적인 생계는 갖추어 주고 자립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향후 활동계획

향후 활동 계획

- DAHAPARA SCHOOLING PROGRAM

인형극 :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인형 및 배경 완성

운동회 & 미술 경진대회

신상카드 제작 : 아이들의 가족사항과 정보를 모은 신상카드를 제작한다.

가족사진 : 신상카드를 제작하면서 모은 가족사진을 크게 인화해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다.

- 한국어 수업

- 태권도 수업

- 비리시리 마을 지도 만들기

- 마무리



4. 개인별 월간 소감

개인별 월간 소감. -김나드-

12월은 굉장히 널 널 할 것 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너무너무 바쁜 달이었어요. 우리 다섯 명이 지내고 있는 BIRISIRI 라는 작은 마을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GARO족이 대부분인 마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끼이는 12월 달은 이들에게 축제의 달이에요. 모든 NGO기관에서, 모든 집에서, 모든 마을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성대하게 열고 그들의 축제를 한껏 즐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어요. 저는 해외에서 맞는 크리스마스가 처음이라 잔뜩 들떠있었어요. 잔뜩 들떠있는 기분을 채워주려고 하는지 한 달 내내 이곳 저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과 라온아띠 멤버들과 마을사람들과 다 함께 어울려서 밤이 늦도록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제대로 된 축제를 즐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크리스마스와는 모든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선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면 이곳에선 모든 마을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공동체', '마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멀리서 지내던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 새 옷을 선물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음식을 먹고 '슈보 보로딘(Merry christmas)'하며 인사를 나누는 행복한 기운들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12월 한달 내내 마냥 들떠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달은 Host Family 와 작별인사를 하고 YMCA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12월 내내 엄마는 저에게 방글라데시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시려고 하셨고, 일찍 일찍 들어오라며 휴일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엄마와 작별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아쉬웠어요.

YMCA와 집이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어서 언제든지 원할 때면 집에 갈 수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Host Family를 시작하기 전엔 YMCA가 내 집이었지만 가족이 생긴 지금은 YMCA가 집보다 불편한 Guest House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외적으로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여서 즐겁긴 했지만 내적으로 집을 떠난다는 사실에 조금은 풀이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별 월간 소감. -한지연-

12월을 비리시리에서 보내면서 내 자신이 비리시리의 주민이 된 것 같았다. 내 친척들이 결혼을 하고, 내 친구, 친척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내면서 이 곳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생겼다. 평범한 일상을 같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날을 함께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하달까.

이번 달은 우리가 평소에 해 오던 다하파라 스쿨링 프로그램, 한국어 수업, 태권도 교실에는 많이 치중하지 못했다. 12월 초에는 대선과 WANGALA로 다카에 다녀와야 했고, 중순부터는 프리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행사, 친척들의 결혼식으로 꽉 찬 한 달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곳의 크리스마스는 마을 공동체가 뚝뚝 뭉쳐 준비한다. 킬턴이라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축제는 그 무엇보다도 비리시리의 크리스마스 풍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 킬턴은 1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행사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모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사다. 이 행사에 몇번씩이나 참여하면서 이 것이 진정한 축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앞뒤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만티와 차를 나누며 함께 즐기는 비리시리의 크리스마스는 마을의 화합이 지속되는 원동력같다. 결혼식 역시 품앗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일손을 자청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모습이 너무 정겨웠다.

몇 일 전에 홈스테이 집에서 나와 다시 YMCA의 게스트 하우스로 들어왔다. 게스트 하우스로 이사 오는 날, 비리시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좋지 않고 가족을 떠나는 것 같았다. 두 달 반 동안 많이 정이 들고 의지했던 가족, 여동생들을 이제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쓸쓸했다. 또 가족 뿐만 아니라 이제 비리시리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 이 곳의 사람, 이 장소, 분위기 모두 다 벌써부터 그립다. 채 2주도 남지 않은 지금, 정말로 정말로 이 곳에 조금이라도 더 남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개인별 월간 소감. -구정선-

라온아띠 활동을 하며 쓰는 마지막 개인별 월간 소감이고, 마지막 월간보고서이다. 정말 여기 사람들과 생활을 하며, 이제 우리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많이 내던진다. 그만큼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무리 단계에 접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제 12월을 지내며, 나 같은 경우는 이 곳 사람이 된거 같다. 언어를 완벽하게 못 할 뿐이지, 이 곳사람들의 고민, 이 곳사람들의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며, 그 동안 함께 나누며, 이 곳 비리시리에서의 4개월 동안,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다. 특히, 요즘에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아쉬워해서 나 또한 무척 슬프다. 밤만 되면, 한국에 갈 날이 머지 않음을 항상 느끼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아쉽다.

이 곳 12월은 우리 기존에 하던 스케줄을 소화할 많이 하지 못하였고, 많은 행사가 있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우리와 사뭇 틀리고, 우리는 많은 연인들끼리 보내는 크리스마스라고 칭한다면, 이곳의 크리스마스는 모두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면 될 듯 싶다. 정말 우리가 10일 동안 스케줄이 없다고는 하지만, 보통 때보다 바쁘고, 피곤하게 10일 정도를 지낸 것 같다. 또한 많은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는데, 우리나라 결혼식문화와 많은 차이를 느꼈고, 한국에 가서 친구들과 많이 공유해주고 싶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 우리가 알려야 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이곳 사람들에게 아직도 다 전달해주지 못한 것 같다. 5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만,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다. 물론 지내는 사람, 지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에게서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나쁜 것 간에 모든 이곳의 일들을 먼 훗날 나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거리, 안주거리가 될 거 같다. 이제 비리시리 2주, 남은 다른 곳에서의 2주는 어떻게 지내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팀원들과 사이 좋고, 이곳 커뮤니티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팀원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남은 마무리 열심히 잘해보고, 남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 파이팅!

개인별 월간 소감. -홍수연-

중간평가 이후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앞으로 더 해야 할 것들... 12월 달은 우리의 활동들을 더 풍부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12월 초는 한국의 대선 때문에 다카에 다녀오고,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곳의 크리스마스 축제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맥이 끊기는 느낌을 받아 안타깝다. 적어도 우리의 전체적인 일정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12월 달은 태권도 수업을 새로 시작하고, 이곳의 축제와 결혼식을 충분히 즐겼다는데 의미가 굉장히 크다. 처음 일정을 받았을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휴일이 왜 이렇게 길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축제를 즐겨보니 그렇게 길지도 않은 휴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2월 중순부터 했던 크리스마스 행사, 그리고 3번의 결혼식, 그리고 새해 맞이까지. 여기서 큰 4개월간을 지내면서 가장 단기간에 이곳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크리스마스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크리스마스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다. 이곳의 노래, 이곳의 춤, 이곳의 악기, 또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어울려 즐기는 이곳의 문화. 많이 어색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크리스마스, 결혼식, 새해맞이를 하면서 든 전체적인 느낌은 모든 행사들이 공동체적 성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였다. 마을, 주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내가 보고 느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와서 가장 많이 배우고 느끼는 점이 이곳의 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축제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같이 도와주고,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이랄 것 없이 일을 나눠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마을이라는 거구나,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한 마을의 주민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건 우리가 호스트 패밀리 생활을 해서 인것 같다. 내가 그렇게 잘 해 드린 것도 없는데 나를 정말 딸로 생각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비바마시, 디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친척, 이웃 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이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다만 이 마을을 떠날때 호스트 패밀리를 떠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2월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이 마을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달만큼 내 자신에 대한 반성도 많이 되고, 많은 것을 뉘우치는 달이었다.

개인별 월간 소감. -이창현-

활동이 4개월에 접어들면서 많이 나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길지 않게 남은 시간과 축제를 맞이하여 이곳 저곳 다니는 바쁜 일정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함을 느꼈다. 특히 12월 초에 다카를 다녀와서 14일까지 짧은 일정과 14일 이후 크리스마스 축제와 휴가로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간평가 이후 일정에 대한 깊은 생각과 내가 팀원들에게 했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는 정신이 없었다.

12월은 특히 활동 후반기로서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을 받았다. 초반에 다카를 다녀오고 선거를 하고 다녀온 뒤 크리스마스 준비와 행사들, 그리고 마을의 축제 분위기로 수업의 부진은 모두의 열정을 식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게다가 많은 결혼식에 초대받아 다니며 시간은 더욱 빠르게 갔다.

게다가 여러 행사로 여기 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1월이 된 지금도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더욱 커져간다. 하지만 12월 이곳에서 이곳만의 많은 색깔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우리의 문화와 현실을 비교해보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여기 결혼식에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며 서로 도와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지금 과거 전통을 지키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젊은 애들은 서구식 미래를 점점 바라는 듯 하다. 하지만 현재 서구화된 사회는 점차 다시 과거에서 현재의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들은 지금 우리가 찾는 미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더욱 지금의 모습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달은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는 달이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 팀원들에게 미안하고 중간평가 이후 내가 찾은 답을 내 스스로 무너뜨려 자승자박에 빠졌으니 많이 고뇌해봐야 할 인생의 과제를 받은 것 같다.